

보도 일시	2022.2.28.(월) 10:00 당일 석간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2.28.(월) 06:00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장 김태경 (044-200-6170)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0-6171)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 2022년도 사업 대상지로 전남 고흥, 충남 태안, 경남 거제, 강원 동해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 교육, 직업, 체험 등 일정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방문의 행태나 주기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다양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에 신청한 1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심사(2.10), 현장실사(2.21~2.23)를 거쳐 4개소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대상지 심사과정에서는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민간 조직인 ‘어촌앵커조직*’이 지역의 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회혁신사업을 기획·실행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 (협동조합문화발전소공감, 강원 동해시 / 공유를 위한 창조, 경남 거제시 / 지역발전 네트워크협동조합&로모, 충남 태안군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연, 전남 고흥군)

또한, 심사위원회는 후보지별 사업 대상 범위로 설정한 어촌생활권*과 어촌생활권 별 거점 설정, 그리고 유희시설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예시 : (1차 생활권) 도보로 이동 가능한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어촌
(2차 생활권) 차량으로 20분 내로 접근 가능한 읍면동 소재지

사업에 선정된 4개 기초지자체에는 4년 동안 최대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첫해에는 지역자원 발굴, 지역 사회문제 및 주민 서비스 욕구 조사 등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어촌생활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지역 살아보기, 창업실험실 등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현장 완성형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에는 지역재생과 지역가치 제고를 연구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이 사업관리 지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도시설계, 관광, 창업, 그리고 공동체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젊은 세대의 지역 유출과 신규인력의 유입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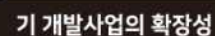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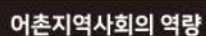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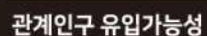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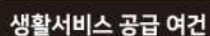
어촌생활권 설정 및 어촌스테이션 운영계획(선정지 대표 사례)

< 강원도 동해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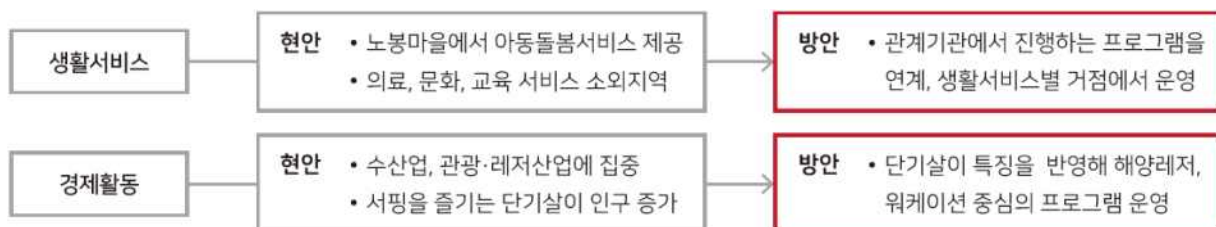
-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단기살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해 대진항은 단기살이 프로그램 운영 장소이자 경제활동이 확산되는 관계인구 유입 거점으로 조성
- 마을별로 생활서비스 거점을 설정하고 사회혁신실험을 통해 각 마을에 생활서비스 전달

방향 전략 어촌생활권 거점 설정 기준 및 거점과 1차, 2차 어촌생활권 연계 전략 제시

설정기준: 생활서비스에서 소외된 정주어항과 배후마을을 1차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해 관계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대진항을 중심으로 어촌지역사회의 역량과 기 개발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



연계방안: 사업 1~2년차에는 2차 생활권인 묵호동에 위치한 생활서비스 공급기관과 연계하여 1차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3년차부터는 생활서비스별 스테이션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
경제활동 부분은 어촌살이 스테이션에 유입된 관계인구가 1차 생활권에서 창업(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생태계를 형성
어촌앵커조직을 중심으로 링커그룹, 관계인구, 어촌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혁신 실험을 통해 1차 생활권내 생활서비스를 전달



방향 전략 어촌스테이션 시범운영 방향 및 전략

거점장소 선정기준 어촌스테이션은 미사용 중이거나 활용이 낮은 시설 중 접근성이 좋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선택
단 마을돌봄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장소를 그대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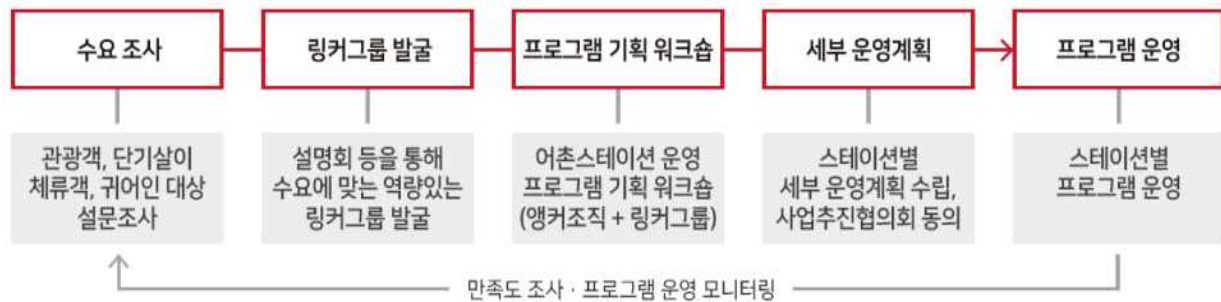
동해시 소유공간

미(저)활용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

장소 매력도 (바다뷰)

운영계획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과 최근에 귀어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스
구체화 테이션에서 운영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 협업할 수 있는 링커그룹을 발굴해 계획을
방안 구체화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계획을 보완



어촌살이 + 의료돌봄 스테이션



쉼표 캠퍼스(관계인구 유입 거점) + 의료서비스

- 운영 주체 : 어촌앵커조직, 동해시 보건소
- 참여 주체 : 대진 어촌계, 좋은커피협동조합, 대진항 서핑연합회 등
- 주요 내용
 - 시 소유의 유휴시설을 어촌앵커조직 사무실로 사용
 - 유휴시설의 증축을 통해 쉼표 캠퍼스 조성(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
 - 시 소유 부지에 어촌살이 임시주택 신축, 1층에 의료서비스 거점 설치

문화공간 스테이션



문화서비스 + 교육서비스 + 창업실험실

- 운영 주체 : 어촌앵커조직
- 참여 주체 : 동해문화원, 동해시립발한도서관, 창호초등학교 등
- 주요 내용
 - 어촌뉴딜300사업으로조성한다목적센터를문화·교육서비스거점공간으로 활용 (한평 책방 조성, 방과 후 교실과 찾아가는 문화교실 등 운영)
 - 지역사회 소유의 유휴공간을 창업실험실로 사용

마을돌봄 스테이션



아동돌봄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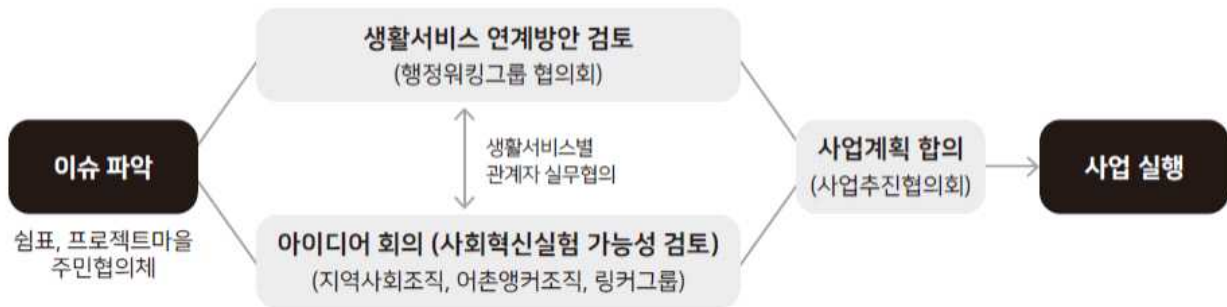
- 운영 주체 : 마중물지역아동센터
- 참여 주체 : 책나래공동체, 미라클핸즈, 반딧불 숲교육 연구소 등
- 주요 내용
 - 노후한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돌봄 스테이션으로 사용
 - 관련부서 지원사업과 연계해 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
 - 링커그룹과 연계해 유휴공간에서 노인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향 전략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

사업 대상지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는 의료, 돌봄, 교육, 문화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
목표 및 대상설정 의료서비스는 대형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60대이상 노인, 돌봄서비스는 유소년과 노인, 교육서비스는 유소년, 문화서비스는 전연령의 주민과 관계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목표 설정



협의과정



구분	조직명	조직 유형	협업 방안	비고
의료	동해시 보건소	공공기관	- 이동보건소, 주치의 이동진료소 운영 - 의료돌봄 스테이션 운영	- 프로그램 운영공간 요구 - 인력 충원을 위한 행정 지원 요구
	묵호건강증진센터	공공기관	치매환자 안심 이동 서비스 제공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 요구
돌봄	마중물지역 아동센터	공공기관	-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놀이와 오락 프로그램 운영을 사업 대상지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 요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교육	동해시립발한 도서관	공공기관	한평 책방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문화	동해문화원	공공기관	-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학교 운영 - 연주회, 콘서트, 연극, 낭독회 등 문화이벤트("금토문화가있는저녁")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과 예산 요구